

보성군, 열선루에서 '녹차수도 보성 다~청년 페스티벌'

체리필터·윤하·던·루피 등 출연, 청년이 만드는 축제, '보성 청년 함께-있다'

보성군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보성을 열선루 일원에서 '2025 제1회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와 통합 개최되는 '제2회 녹차수도 보성 다~청년 페스티벌'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군민과 청년이 함께 어울리는 참여형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축제는 체리필터·미란이·나태주·나영이의 개막 공연으로 화려하게 문을 연다. 이어 '보성 청년 함께-있다', 윤태호 웹툰(미생, 파인) 작가와 함께하는 드로잉콘서트, 보성 갓 텔런트(BoSeong Got Talent) 등 청년과 청소년이 끼와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또한, 청년 콘서트에는 가수 윤하·던·루피, DJ장군이 출연해 EDM 파티를 선보이며, 청년층의 공감과 참여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보성 청년 함께-있다' 프로그램에서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지역 청년이 소통하는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금의 보성)', 청년들의 성취를 격려하는 '청년어워즈', 방송인 노홍철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마련된다.

아울러, 축제 기간 타로·캐리커처·청춘문방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돼 청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다~청년 페스티벌

은 청년이 주인공이 돼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보성 청년들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한데 모은 자리"라며 "청년들에게는 도전과 성장의 무대가 되고, 군민에게는 청년 세대의 열정과 가능성을 느끼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보성 열선루 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국가유산야행, ▲제2회 다~청년페스티벌, ▲제13회 보성세계차박람회, ▲제3회 대한민국 차나무 분재대전, ▲전남 우수 분재대전,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등 60여 개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통합축제로 진행된다.

보성/김운기 기자



담양군, 대한민국 SNS 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 캐기 차별화된 콘텐츠로 지역 매력 알리며 높은 평가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캐거를 달성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으로 전국 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의 SNS 활용 역량과 국민과의 소통 수준을 종합 평가해 수여한다.

담양군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담양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관광지, 지역 먹거리 등 고유한 매력을 품겨 있는 콘텐츠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담양구석구석' 콘텐츠는 지

역의 숨은 명소와 이야기를 깊이 있게 소개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광지를 소개하는 음악 영상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며 홍보 전략의 다양성을 더했다.

특히 짧은 영상(숏폼)과 일상 기록 영상(브이로그) 등 새로운 형식을 적극 활용해 군민과 관광객이 쉽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SNS는 군민과의 신뢰를 쌓는 소중한 소통창구"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과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해, 담양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강진군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도시민 유치와 정주인구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현재 강진군은 2025년 제3차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177가구 규모의 사업대상지를 이달 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자가거주 11가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실거주형 빈집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현재 신청 접수된 30건 중 현장 확인을 이달 22일까지 마친 뒤, 30일 내외로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한다. 이 중 자가거주 가구는 타 지역 이주민이 강진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하는 형태로, 정주 인구 확대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 "빈집에 새 희망을, 삶에 새 터전을"

자가 거주 포함 2025년 제3차 빈집 리모델링 대상지 선정

이러한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행정절차와 과감한 사업 방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장기입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강진군은 이번에 전체 177가구 중 11가구(6%)를 자가거주형으로 유도하며 '실거주 중심 정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강진군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는 도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강진 품앗이'의 제5차 입주자 모집도 오는 11월부터 진행한다. 총 87가구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서류접수(11월 14일까지) ▲서류심사(11월 21일) ▲면접심사(11월 28일)를 통해 입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10월 현재까지 강진품앗이를 통해 85가구, 총 241명(장기입대 183명, 자가거주 58명)이 강진으로 전입했다. 이번 11월 입주가 마무리되면 정주 인구는 300명에 근

접한다. 이는 농촌형 인구 유치 정책으로 매우 드문 성과이며, 지역 상권과 생활 인프라 활성화에도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신축 지원, 신규마을 조성, 푸소(FUSO) 체험 프로그램,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히 자가거주 지원은 실거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인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2인 이상 전입 및 최소 10년 거주라는 조건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정착형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강진/송경설 기자

장성군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체험관' 문 열었습니다"

매주 월·수·금 사전예약제 운영... 김한중 군수 "교육 기회 확대"

장성군이 15일 장성군보건소 앞에서 '심폐소생술 체험관' 개관식을 가졌다. 김한중 장성군수와 심심심 장성군의 회 의장, 군의원, 유관기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체험관 개관을 축하했다.

'심폐소생술 체험관'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 공간이다. 성인·영아용 심폐소생술(CPR) 실습 마네킹,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갖추고 있다.

교육은 매주 월·수·금요일에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장성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약 전화는 장성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1-390-7103)으로 하면 된다.

이날 개관식에선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이목을 끌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해 광양시의 지역 정체성과 농·특산물에 어우러진 정일문화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 국제농업박람회(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25개국 38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와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진

국제농업박람회 '남도 미니정원'에서 광양시 만나요!

즐거운 추억이 머무는 미니정원 선보인다

행된다.

광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을 소주제로 남도 미니정원에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과 농·특산물을 홍보하며, 농업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함께 전한다.

특히 광양의 대표 농산물인 매실과 매화나무를 활용해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광양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매들이' 캐릭터 화분과 토끼·당근 모양의 의자 등을 배치해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 부스를 통해 광양 대표 농산물인 매실, 양상추, 애호박 등을

소개하고, 광양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한 '광양 농부' 브랜드 제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은희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남도 미니정원을 통해 광양의 대표 농산물 매실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의 매력을 함께 전달하고자 한다"며 "많은 관람객이 광양의 미니정원 포토존에서 잠시 쉬어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KBS전국노래자랑 예심 참가자를 15~24일 선착순 300명 모집한다.

영암군 주최, KBS 주관으로 11/8일 오후 2시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열리는 전국노래자랑에서 솜씨를 뽐낼 영암군민 등의 신청을 받는다.

영암군, 30일 전국노래자랑 예심 참가자 선착순 모집

이번 전국노래자랑 예심은 이달 30일 오후 1시부터 영암읍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열린다.

예심 참가 신청은 영암군민, 영암군 소

재 사업자·직장인·학생 등이 할 수 있고, 노래자랑 포스터 등에 기재된 기성가수는 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영암군 각 읍·면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영암군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이메일(zzakwoong@korea.kr)로 보내면 된다.

전국노래자랑 예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홍보전략실(061-470-2321)에서 안내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